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217

JCCT 2022-3-28

##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ire Officers

이철희\*, 앙카바야르\*\*, 이재욱\*\*\*

Lee Chul Hee\*, Ankhbayar Lkhaasuren\*\*, Lee Jae Wook\*\*\*

**요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해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와 함께 실질적·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언·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에서 설정한 연구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성별, 전공, 학년, 가족이나 친척 중 소방공무원의 유무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생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후생복리에 대한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소방 관련학과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 60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유효한 설문지 513부를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3가지로 구분하여 20항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SPSS/win (Ver.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식개선을 위한 보상과 안전시설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적절한 근로시간의 보장과 급여상승 및 충원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국립소방병원의 설치와 심리상담의 필요성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 행정적·제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학생, 설문조사, 비교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examine the perception of fire officials for college students who need to prepare and choose fire officials, and to identify and present practical an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along with raising awareness of fire officials. In order to achieve the basic purpose of the study set above, we tried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general level of awareness of fire officials, the working environment of fire officials, and group welfare according to the gender, major, grade, family or relative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00 students enrolled in a four-year university in the Department of Firefighting, and 513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The survey content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f perceptions of firefighting officials and consisted of 20 questions, an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using the SPSS/win (Ver10.0) program. As a result, first, compensation for awareness improvement and the expansion of safety facilities and equipment are necessary.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such as guaranteeing appropriate working hours and raising and replenishing wages. Third, the results of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ire hospital and the ne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were derived.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national-level laws and systems, and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firefighters.

**Key words** : Fire Officials, Working Environment, Students, Surveys, Comparative Analysis

\*정희원, 원광대학교 관리처 시설지원과 과장 (제1저자)  
\*\*정희원,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박사과정 (참여저자)  
\*\*\*정희원,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Received: January 27, 2022 /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8, 2022

\*Corresponding Author: spay051@naver.com

Dep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 Korea

## 1. 서 론

국내 경기의 지속적인 불황과 세계 경제의 침체 등에 의해 구조조정과 감원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일부 대학생들은 졸업시기를 연기하면서 취업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업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적성을 고려한 취업준비보다는 학년이 높아갈수록 전공과 무관하게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만 몰리는 세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이 서울시 2019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1,924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53대 1을 기록하였다[1]. 2020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16,0240명이 응시에 평균 경쟁률은 6.9대 1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이 11.5대 1, 대구 10.8대 1, 세종 10.6대 1순으로 나타났다[2].

화재 및 재난·재해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률도 예외가 아니다.

강원도 2020년도 322명 소방사 공개채용 모집에 2,376명이 응시해 7.4대 1, 경력 채용은 125명 모집에 1,134명이 응시해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3]. 이렇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선호도에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없이 이루어졌으나 개선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평균 수명 67세, 3명 중 1명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1인당 평균 6.36건 트라우마 경험, 소방보건의 0명, 소방관 전문 치료병원 전무, 최근 10년 새 순직한 소방관 수 51명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4].

누군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손 내밀고 가장 늦게 현장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다. 그러기에 일반공무원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숭고한 희생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요구하기에 각종 재난현장에서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의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으며,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자신 또한 화상을 포함한 각종 상해와 외상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있어서도 아주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방공무원

순직자는 연평균 4.4명, 공상자는 763명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5-1].

소방공무원의 10.8%가 우울증상, 6.8%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앓고 있었으며[6], 일반인 집단보다 우울증상이 약 5배가 높게 나타났으며,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낀 소방공무원은 48.0%(12,296명)으로 나타났다[7].

또한 2020년도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활동 건수를 살펴보면, 화재발생은 38,657건, 구조활동은 719,228건, 구급활동은 1,594,390건으로 나타났다[5-2].

반면에, 2020년 현재 소방공무원은 60,994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국민의 수는 859명이다[5-3]. 미국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수가 1천명, 일본이 820명이며, 소방공무원과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의 수가 5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매우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전국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다가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었다. 1992년 각 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확립된 광역자치 소방체제에서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에도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8].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높은 지원과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높고, 선직국과 비교하여 1인당 담당해야 할 국민의 수가 높으며, 과중한 업무와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사상률 역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현직과 퇴직 후에도 근무여건과 후생복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행정적, 실무적 방안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와 함께 실질적·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인·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에서 설정한 연구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성별, 전공, 학년, 가족이나 친척 중 소방공무원의 유무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생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후생복지에 대한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 II. 연구의 방법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확인·분석하기에 적합한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처리 등을 제시하였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의 4년제 대학 중 소방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에 설문지를 우송하여 배부하고, 회수된 설문지 519부 중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13부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 대상의 개인배경별 특성에 따른 분포 현황은 학생의 성별, 전공, 학년, 가족 소방공무원의 존재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Division         |                          | Responses<br>n(%)             |           |
|------------------|--------------------------|-------------------------------|-----------|
| Student<br>(513) | Gender                   | Male                          | 371(72.3) |
|                  |                          | Female                        | 142(27.7) |
|                  | Major                    | Fire Science                  | 327(63.7) |
|                  |                          | Humanities/<br>Social science | 106(20.7) |
|                  |                          | Natural science               | 80(15.6)  |
|                  | Grade                    | a First                       | 132(25.7) |
|                  |                          | Second                        | 67(13.1)  |
|                  |                          | Third                         | 116(22.6) |
|                  |                          | Fourth                        | 198(38.6) |
|                  | Fire-fighting<br>officer | Existence                     | 70(13.6)  |
| Nonexistence     |                          | 443(86.4)                     |           |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확인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내용에 맞게 교수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전라북도 소재의 4년제 대학 중 소방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생 51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 9개 문항,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6개 문항, 후생복지에 대한 인식 4개 문항으로 총 19 문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처리는 각 설문지의 Likert식의 5단계 평정방식으로 구성하여 평정척도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 하였다.

###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10.0)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19개 문항들에 대한 빈도(N)와 백분률(%)을 산출하며, 성별, 전공별, 학년별, 소방공무원 유무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의 분석과 해석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성별, 전공별, 학년별, 소방공무원 유무별로 따라 차례로 제시하였다.

###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일반적인 인식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소방공무원이 된 것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으나 소방공무원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9].

#### 1) 소방공무원에 대한 희망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67.4%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은 꿈은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69.0%와 여학생의 63.4%가 소방

공무원이 되고 싶은 꿈은 가진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0.224$ ,  $df=1$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8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연계열(67.5%), 인문계열(66.0%)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2$ ).

학년별로는 1학년의 75.8%, 2학년의 64.2%, 3학년의 72.4%, 4학년의 60.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14$ ,  $df=3$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대부분인 88.6%와 그렇지 않은 학생의 64.1%가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1$ ).

## 2) 고등학교 이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희망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후에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진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52.8%가 고등학교 이후에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5.8%가 긍정적으로, 여학생의 54.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0.290$ ,  $df=1$ ).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의 88.7%, 자연계열의 92.5%, 소방 관련학과의 77.4%로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2$ ).

학년별로는 1학년의 62.1%, 3학년의 69.0%가 긍정적으로, 2학년의 61.2%, 4학년의 58.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3$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74.3%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의 50.6%가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1$ ).

## 3) 소방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소방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30.8%가 ‘숭고한 정신’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화재 및 재난, 119, 희생, 구조 및 구급,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 사이렌소리, 두꺼운 방화복 및 무거운 장비 순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32.3%, 여학생의 26.8%가 ‘숭고한 정신’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화재 및 재난, 희생, 119, 구조 및 구급 등이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119, 희생, 구조 및 구급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0.067$ ,  $df=6$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32.4%, 인문계열의 28.3%, 자연계열의 27.5%가 각각 ‘숭고한 정신’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전공과 관련없이 ‘화재 및 재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14$ ).

학년별로는 1학년의 25.0%, 3학년의 37.9%, 4학년의 32.8%가 ‘숭고한 정신’이라고 응답하였고, 2학년의 29.9%가 ‘희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5$ ,  $df=21$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대부분인 28.6%, 그렇지 않은 학생의 31.2%가 ‘숭고한 정신’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233$ ,  $df=7$ ).

## 4) 소방관 체험교실에 참여

“소방관 체험교실에 참여하고 싶은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54.8%가 소방관 체험교실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0.9%, 여학생의 69.7%가 소방관 체험교실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1$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68.8%가 소방관 체험교실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인문사회계열의 71.7%, 자연계열의 67.5%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2$ ).

학년별로는 1학년의 74.2%, 2학년의 50.7%, 3학년의 52.6%, 4학년의 44.4%가 소방관 체험교실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낮아졌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3$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61.4%와 그렇지 않은 학생의 53.7%가 소방관 체험교실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229$ ,  $df=1$ ).

#### 5) 소방공무원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할 사항

“소방공무원(또는 소방학과 지원)을 선택한다고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36.8%가 ‘자신의 꿈’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사명감 또는 보람감(32.2%), 적성(25.1%) 순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38.0%, 여학생의 33.8%가 ‘자신의 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2$ ,  $df=4$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41.9%가 ‘자신의 꿈’이라고 응답하였고, 인문사회계열의 43.4%, 자연계열의 40.0%가 ‘사명감 또는 보람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8$ ).

학년별로는 1학년의 35.6%, 2학년의 35.8%, 3학년의 46.6%가 ‘자신의 꿈’이라고 응답하였고, 4학년의 37.9%가 ‘사명감 또는 보람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5$ ,  $df=12$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42.9%가 ‘사명감 또는 보람감’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의 39.1%가 ‘자신의 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16$ ,  $df=4$ ).

#### 6) 소방공무원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소방공무원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66.1%가 ‘위험부담이 높아서’ 소방공무원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63.6%, 여학생의 72.5%가 ‘위험부담이 높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3$ ,  $df=4$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69.4%, 인문사회계열의 62.3%, 자연계열의 57.5%가 ‘위험부담이 높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8$ ).

학년별로는 3학년의 79.3%, 2학년의 79.1%, 1학년의 64.4%, 4학년의 55.1%가 ‘위험부담이 높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12$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64.3%, 그렇지 않은 학생의 66.4%가 ‘위험부담이 높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682$ ,  $df=4$ ).

#### 7)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자신이 느끼기에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는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40.0%가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낮다고, 32.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40.4%, 여학생의 38.7%가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15$ ,  $df=4$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40.1%, 인문사회계열의 37.7%, 자연계열의 42.5%가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1$ ,  $df=8$ ).

학년별로는 1학년의 43.2%, 2학년의 49.3%, 4학년의 43.4%가 낮다고 응답하였고, 3학년의 38.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12$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38.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의 41.1%가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005$ ,  $df=4$ ).

8)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58.3%가 소방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7.3%가 ‘물질적 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3.6%, 여학생의 70.4%가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14$ ,  $df=5$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56.0%, 인문사회계열의 62.3%, 자연계열의 62.5%가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31$ ,  $df=10$ ).

학년별로는 1학년의 65.2%, 2학년의 47.8%, 3학년의 44.0%, 4학년의 65.7%가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15$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48.6%, 그렇지 않은 학생의 59.8%가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5$ ,  $df=5$ ).

9) 향후 자녀 또는 친척에게 소방공무원 권장

“향후 귀하의 자녀 또는 가까운 친척이 소방공무원을 선택한다면?”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49.3%가 향후 자녀 또는 친척이 소방공무원 선택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0.7%, 여학생의 45.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4$ ,  $df=4$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56.0%, 인문사회계열의 41.5%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연계열의 50.0%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8$ ).

학년별로는 1학년의 49.2%, 2학년의 41.8%, 3학년의 46.6%, 4학년의 53.5%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1$ ,  $df=12$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48.6%, 그렇지 않은 학생의 49.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875$ ,  $df=4$ ).

## 2.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2006년 공·사상자 총계를 보면 소방공무원 정원 29,957명 중 304명이 발생하여 발생 비율이 1.01%, 순직은 6명(0.02%), 공상은 298명(0.99%)이었으며, 소방공무원의 사망자 평균 연령은 62.8세로 타 공무원 중 가장 낮았다. 교육직 공무원(70세), 일반직 공무원(65.6세), 경찰직 공무원(65세), 기능직 공무원(64.4세) 순이었다(한정찬, 2007)[10-1].

### 1)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49.1%가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길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1.2%, 여학생의 43.7%가 근무시간이 길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1$ ,  $df=4$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44.6%, 인문사회계열의 56.6%, 자연계열의 57.5%가 근무시간이 길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8$ ).

학년별로는 1학년의 60.6%, 2학년의 58.2%, 4학년의 49.5%가 근무시간이 길다고 응답하였고, 3학년의 63.8%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12$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51.4%, 그렇지 않은 학생의 48.8%가 근무시간이 길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30$ ,  $df=4$ ).

## 2) 소방공무원의 법정 근로시간의 보장

“소방공무원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45.6%가 소방공무원의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48.0%가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48.6%가 법정 근로시간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2$ ,  $df=3$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50.8%가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인문사회계열의 49.1%가 확실히 보장받아야 하며, 자연계열의 37.5%가 각각 보장과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11$ ,  $df=6$ ).

학년별로는 1학년의 47.0%, 2학년의 52.2%가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학년의 52.6%와 4학년의 44.9%가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9$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50.0%, 그렇지 않은 학생의 44.9%가 법정 근무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125$ ,  $df=3$ ).

## 3) 주당 초과근무의 적정 시간

“소방공무원이 법정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를 한다면 주당 몇 시간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50.5%가 소방공무원의 주당 초과근무 시간은 5시간 이내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42.3%가 5~10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47.2%, 여학생의 59.2%가 ‘5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33$ ,  $df=3$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50.5%, 인문사회계열의 49.1%, 자연계열의 52.5%가 ‘5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181$ ,  $df=6$ ).

학년별로는 1학년의 55.3%, 2학년의 62.7%가 ‘5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3학년의 47.4%, 4학년의 44.9%가 ‘5~10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093$ ,  $df=9$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48.6%가 ‘5~10시간’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의 51.2%가 ‘5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497$ ,  $df=3$ ).

## 4) 소방공무원의 급여수준

“자신이 생각하기에 소방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56.3%가 소방공무원의 급여가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4.7%, 여학생의 60.6%가 급여가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084$ ,  $df=4$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55.4%, 인문사회계열의 64.2%, 자연계열의 50.0%가 급여가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8$ ).

학년별로는 1학년의 66.7%, 2학년의 64.2%, 4학년의 56.6%가 급여가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3학년의 45.7%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12$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51.4%, 그렇지 않은 학생의 57.1%가 급여가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662$ ,  $df=4$ ).

## 5) 다른 공무원과의 동일 급여에 대한 생각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40.0%가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40.4%, 여학생의 38.7%가 다른

공무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085$ ,  $df=4$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46.2%, 인문사회계열의 30.2%, 자연계열의 27.5%가 다른 공무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8$ ).

학년별로는 1학년의 40.9%, 2학년의 40.3%, 3학년의 43.1%, 4학년의 37.4%가 다른 공무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2$ ,  $df=12$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38.6%, 그렇지 않은 학생의 40.2%가 다른 공무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899$ ,  $df=4$ ).

#### 6) 소방공무원수의 적정성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수가 적정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48.0%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45.3%, 여학생의 54.9%가 소방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1$ ,  $df=4$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48.3%, 인문사회계열의 50.9%, 자연계열의 42.5%가 소방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8$ ).

학년별로는 1학년의 42.4%, 2학년의 53.7%, 3학년의 50.0%, 4학년의 48.5%가 소방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37$ ,  $df=12$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52.9%, 그렇지 않은 학생의 47.2%가 소방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chi^2=0.227$ ,  $df=4$ ).

#### 3. 소방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인식

2007년 1월 1일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30,199명 중 내근 근무자 및 일부 상대적 격무부서 및 119 구급대를 제외한 21,139명(75%)이 2교대 근무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무시간인 주 44시간을 40시간이나 초과하여 주 84시간의 격무와 출동대기의 긴장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항상 긴장과 심적, 육체적 스트레스 및 피로로 지쳐있어 직무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10-2].

##### 1)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의 적정성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적정인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52.8%가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1.8%, 여학생의 55.6%가 위험근무수당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738$ ,  $df=3$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54.1%, 인문사회계열의 47.2%, 자연계열의 55.0%가 위험근무수당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26$ ,  $df=6$ ).

학년별로는 1학년의 52.3%, 2학년의 44.3%, 3학년의 63.8%, 4학년의 50.0%가 위험근무수당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21$ ,  $df=9$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58.6%, 그렇지 않은 학생의 51.9%가 위험근무수당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520$ ,  $df=3$ ).

##### 2) 국립소방병원 건립의 필요성

“소방공무원을 위한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55.9%가 소방공무원을 위한 ‘국립소방병원’이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3.9%, 여학생의 61.3%가 국립소방



병원이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6$ ,  $df=4$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61.5%, 인문사회계열의 49.1%, 자연계열의 42.5%가 국립소방병원이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8$ ).

학년별로는 1학년의 65.9%, 2학년의 59.7%, 3학년의 47.4%, 4학년의 53.0%가 국립소방병원이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9$ ,  $df=12$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67.1%, 그렇지 않은 학생의 54.2%가 국립소방병원이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183$ ,  $df=4$ ).

### 3)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치료의 필요성

“소방공무원의 정신장애(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와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64.7%가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60.6%, 여학생의 75.4%가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10$ ,  $df=4$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66.1%, 인문사회계열의 71.7%, 자연계열의 50.0%가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0.000$ ,  $df=8$ ).

학년별로는 1학년의 69.7%, 2학년의 73.1%, 3학년의 67.2%, 4학년의 57.1%가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178$ ,  $df=12$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58.6%, 그렇지 않은 학생의

65.7%가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499$ ,  $df=4$ ).

### 4)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치료비의 부담 주체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73.9%가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71.7%, 여학생의 79.6%가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234$ ,  $df=3$ ).

전공별로는 소방 관련학과의 71.9%, 인문사회계열의 73.6%, 자연계열의 82.5%가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125$ ,  $df=6$ ).

학년별로는 1학년의 68.2%, 2학년의 82.1%, 3학년의 70.7%, 4학년의 76.8%가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064$ ,  $df=9$ ).

소방공무원 유무별로는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학생의 71.4%, 그렇지 않은 학생의 74.3%가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205$ ,  $df=3$ ).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 전공, 학년, 소방공무원 유무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소방공무원을 꿈꾼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 특성상 소방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다른 인문사회·자연계열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중 소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 그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소방공무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방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숭고한 정신이었으며, 다음으로 화재 및 재난, 119, 희생 그리고 구조 및 구급 순이었다. 소방공무원을 선택할 때 자신의 꿈과 사명감 또는 보람감, 적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위험부담이 높다는 인식이 성별, 전공, 학년, 가족이나 친척 중 소방공무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소방 관련학과에 재학생과 가족 또는 친척 중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있는 대학생에게 상대적으로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물질적 보상과 함께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아울러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향후 자녀 또는 친척이 소방공무원의 선택에 긍정적이었으며, 소방 관련학과의 대학생이 인문사회·자연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있어서 성별, 전공, 학년, 소방공무원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급여수준은 낮은편이고, 소방공무원은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있어서 현행 6만원인 위험근무수당은 위험수준을 고려할 때 적은 편이었고, 또한 소방공무원을 위한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위험수준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립소방병원’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치료는 꼭 필요하며, 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하여 개인배경별 특성을 기초로 하여 설문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향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인식, 근로환경과 제반 여건 그리고 적절한 급여와 수당, 복리후생 등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원인 분석과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Chosunilbo. 2019.8.13.
- [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0
- [3] Yonhap News. 2020.6.5.
- [4] Yonhap News. 2017.12.19..
- [5] National Fire Agency. 2021.
- [6] S. K. Sung and S. Y. Hyung, A policy study on the expansion of veterans support for police, maritime police, and firefighters.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 Veterans, (2013), Vol.29, No4, p.103.
- [7] Y. S. An and others, Exposure to Traumatic Events in Male Firefighters.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11), Vol.29, No4, pp.316-322.
- [8] Yonhap News. 2019. 11. 19.
- [9] K. Y. Kang, Measures to develop firefighting infrastructure and ensure public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transition to national positions of firefighters -including a nationwide survey of firefighters- (2014), Policy materials for the 329th regular National Assembly. pp.53-56.
- [10] J. C. Han. A Study on the Welfare Improvement Plan for Fire Officials -Focusing on the Fields Related to Fire Suppression Work-. Hoseo University of Asan, Chungcheongnam Korea, (2007) pp.105-106